



2013년 최인혜 해외연수 보고서 (2013년 2월)

- 토론토 • 뉴욕 • LA -

Canada & USA



시민일보 제정 제10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 일시 : 2012년 11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헌정기념관 ● 주최 : 시민일보 ● 후원 : 경민대학교



제2회 경기언론인연합회 의정상 시상식

● 일시 : 2013년 11월 10일 ● 주최 : 경기언론인연합회

경기언론인연합회, 경기언론계신문, 경기언론계신문, 경기언론계신문, 경기언론계신문, 경기언론계신문, 경기언론계신문, 경기언론계신문, 경기언론계신문, 경기언론계신문





Inhye's council report

2013년 최인혜 해외연수 보고서 (2013년 2월)

- 토론토, 뉴욕, LA -

Canada & USA

〈2013년 해외연수 보고서를 만들며……〉	4
〈아는제 하면 샌드위치 하나도 못시켜~〉	6
〈캐나다 스타벅스에서의 단상〉	9
〈토론토에서 발견한 도서관의 아름다움〉	13
〈토론토와 오산의 쓰레기 정책〉	18
〈동네 Starbucks 에서 발견한 사람의 아름다움〉	22
〈영어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26
〈캐나다에서 배우는 다문화정책〉	29
〈브로드웨이에서 생각하는 혁신교육〉	32
〈자전거 거치대〉	35
〈노인센터〉	37
〈 LA Getty Center: 놀라운 기부문화 〉	39
〈 LA Huntington Library : 역시 놀라운 기부문화〉	42
〈토론토 대학교 물리학 강의실 스케치〉	44
〈토론토대학교 도서관에서〉	48
〈토론토대학교 Book Store〉	51
〈제설작업〉	52
〈2013 해외탐방을 마치며〉	54
〈제 19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60
〈캐나다 미국탐방에 관한 언론보도〉	62

〈2013년 해외연수 보고서를 만들며……〉

나는 독서와 여행을 좋아한다. 의원이 되기 전부터 여행을 하며 견문을 넓히려 노력해 왔다.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 여행은 서서하는 독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언론의 못매를 맞기 일쑤이다. 아무리 모범된 연수보고서를 작성해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가 어렵고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간다고 하면 많은 시민들은 혈세의 낭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연수비로 책정된 예산을 쓰지 않고 자비를 들여 해외연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다.

2011년에는 일본 가나자와에 다녀온 적이 있으므로⁰¹ 이번에는 캐나다와 미국을 탐방하기로 했다. 예전에도 다녀온 적이 있지만 의원으로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는 여행은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었다. 주제는 크게 도서관, 쓰레기, 노인 정책으로 정했다. 연수시기를 2월로 정한 것은 회기가 없는 유일한 달에다 설날을 비롯한 휴일이 겹쳐



〈Robarts 도서관 구석에서〉

01 가나자와에서는 공무원과 의원이 합동으로 연수했다.

오히려 맘이 편하고 평소 궁금했던 그 나라의 제설작업을 보려면 겨울이
어야 했기 때문이다.

거의 한 달 동안 혼자 열심히 돌아다니며 관찰했다. 예전에는 그저 여행할 장소에 대해 꼭 공부를 하고 가야한다는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탐방을 통해서도 평소에 공부하는 사람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장기간 여행을 하면 진실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의원들은 남들이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단체로 갔다오는 여행에서도 많은 것을 배운다. 그러나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를 궁금해하면서 가기 전부터 스스로 행선지와 숙박을 결정하며 얻는 경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개인 인생의 보물이 되며 의원들의 안목은 시정에 반영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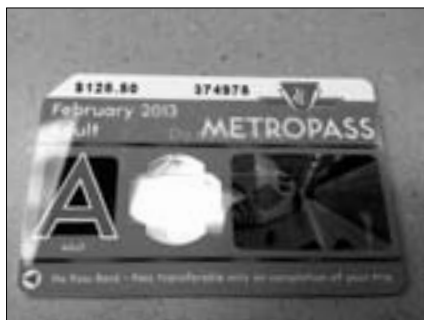
이번 체류기간 동안 나는 많은 신문기고문을 썼다. 이 보고서는 그 기고문을 토대로 했고 기고문이 다루지 않은 내용은 사진을 첨부하여 짤막한 단상들을 옷입히게 되었다. 부드러운 수필과 조금은 딱딱한 신문기고문형식이 어우러져 있다. 이 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여행기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도 물론이다. 혼자하는 여행은 가끔 감상적이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시를 쓰기도 하였다. 시를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시라고 부를 수도 없지만 치밀어 오르는 기쁨과 흥분은 감히 이런 끄적임을 시도하게 만들었다. 말하자면 이 탐방기는 형식이 없는 글이라는 뜻이다. 부디 부담없이 술술 읽혀지길 바란다.

토론토와 뉴욕, LA를 거치면서 얻은 마음속의 깨달음과 경험을 나는 오산시민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임기동안 더 열심히 공부하여 시민들의 기억에 남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아는체 하면 샌드위치 하나도 못시켜~〉

경기in⁰²

나는 지금 캐나다의 토론 토에 머물며 이것 저것 가리지 않고 경험하고 있다. 혼자 메트로 패스하나 끊어서 여기저기 다니며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것은 상큼하고 매력적인 일이다. 한국에서는 영어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지만 나의 영어실력이라는 것이 어찌나 우스운지 여기서는 샌드위치 하나를 제대로 시키는데 세 번의 실패를 했다.



〈캐나다돈 100불인 이 메트로패스 하나면 한달 동안 지하철을 타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다.〉

한국의 강남교보에는 Subway라는 샌드위치 체인점이 있다. 이 샌드위치는 보통 6,7천원에서 만원이나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잘 먹지 않게 된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어디나 둘러보면 눈에 띄는 것이, 타는 Subway가 아니라 먹는 Subway이고 가장 만만하게 먹을 만한 것이 또한 subway 샌드위치이다. 맛없게 생긴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 캐나다 친구가 닭가슴살과 갖가지 채소를 넣은 Subway를 소개해 준 후로 나는 하루에 한번씩 서브웨이를 먹고 있다.

첫 날, 혼자 샌드위치를 시키는데 나는 길게 줄 서있는 사람들 속에 섞여 이들이 주문하는 내용을 유심히 들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말이 너무 빨라 도대체 빵종류는 뭐라고 발음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

02 경기 in에 준 세 편의 글은 '최인혜 의원의 상큼발랄 캐나다 탐방기'로 인터넷에 게재되었다. 시사적인 내용이 아니라 일상을 담은 수필에 가깝다.

다. 내 차례가 되었는데 안 시킬 수도 없어 꾸물거리면서 앞사람들이 주문한 것 비슷하게 달라고 했다. 직원이 뭐라고 묻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 Yes, yes 했더니 가장 비싼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었다. 나는 여러 가지 고기를 다 넣을 생각이 없었으나 그걸 다 넣어 제일 비싼 샌드위치를 만들었으니 맛이야 기가 막혔다. 모르면 물어볼 것이지 왜 yes라고 했는지…… 비싸고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다음에는 닭가슴살과 치즈를 넣은 샌드위치를 제대로 주문하리라 결심했다.

다음날은 다른 지역의 Subway점을 찾았다. 이번에는 닭가슴살은 제대로 말했는데 직원이 무슨 빵으로 하겠냐고 묻자 당황하여 사진을 보고 flat bread를 시키게 되었다. 아 그런데 그 빵이 제일 맛없는데다가 오븐에 구우라는 말을 안했더니 닭가슴살 하나 달랑 넣어 맛이 없는게 아닌가? 나는 돈내고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집에 돌아와 캐나다 친구에게 말하자 친구는 닭가슴살을 넣은 whole wheat bread (통밀빵)으로 시키라고 가르쳐 주었다.

세 번째 날은 이번에는 말로 제대로 주문하여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말리라고 생각하며 주문할 말을 외우면서 갔다. “Can I have oven roasted chicken on the whole wheat bread?” 이렇게 말이다. 그런데 다른 친구



〈이 많은 재료 중에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고르면 된다.〉

구가 이탈리아인 허브 치즈가 맛있다고 가르쳐주며 가는 것이다. 나는 마음을 바꿔 이탈리아인 허브 치즈를 시키기로 했다. 그런데 직원이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포기한 듯이 만들어 준 것이 일반 치즈 한 장에 채소만 잔뜩 들어간 다이어트 샌드위치였다. 세 번째로 샌드위치 주문에 실패한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

니 나는 닭가슴살 대신에 이탈리아
허브치즈를 시킨것인데 그건 빵이
름이라는데 아닌가? 고기대신 빵이
름만 말하니 직원이 기진맥진하여
고기없이 그 빵에 야채만 끼워준
것이였다. 고기에 따라 값이 달라
지는데 고기를 빼고 만들었으니 값
은 싸졌지만 기가 막힌 일이었다.



〈이건 인도음식. 생긴 것보다 훨씬 맛있다.〉

영어를 못하여 첫 날은 제일 비싼 것, 둘째 날은 제일 맛없는 것, 셋째
날은 제일 싼 샌드위치를 시킨 것이다. 가만히 생각하니 주문에 계속 실
패한 이유는 못알아 듣고도 세 번 모두 알아들은 체를 했기 때문이다. 모
르면 모른다 하고 묻는게 모든 일에 실수를 방지하는 길 아닌가? 5년 전
에도 이 나라에 와서 음식을 주문할 때 웨이터가 ‘soup or salad?’라고
묻는데 ‘super salad’라고 말하는 줄 알고 ‘yes’를 거듭하여 웨이터가 가
버린 생각이 난다. 오늘은 야채만 끼운 샌드위치를 먹고 배가 고픈 가운
데 토론토의 밤은 깊어가고 있다.



〈버블티 가게에서〉



〈요건 짱 맛있는 버블티〉

〈캐나다 스타벅스에서의 단상〉

물향기신문 - 최인혜 | 오산시의회 의원/국제관계학 박사

※ 최인혜 의원은 현재 개인경비로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하여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 여러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해외에서 직접 방문하고 조사한 다문화, 쓰레기 문제, 도서관 등 사례에 대한 소개를 본지에 연재할 뜻을 밝혀 왔습니다. 이에 본지는 최 의원의 탐방공부 주제에 대한 소개가 지역사회에 의미있다고 판단되어 몇 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연재하고자 합니다.

본지는 지역 정치인들의 공부하는 자세와 고민의 결과물을 환영합니다. 누구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내놓는다면 본지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편집자 주〉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나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다. 사람은 공부를 해야하며 지식을 넓히는 간접경험에는 독서와 여행이 필수이고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 여행은 ‘서서하는 독서’라는 지론을 가지고 있기때문이다.

나는 지금 캐나다의 한 스타벅스에 앉아 있다. 이번엔 혼자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도서관, 다문화, 쓰레기 문제 등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여행을 하다보면 본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얻게 되는 귀중한 교훈들이 있는데 이번엔 다시금 스타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벅스의 일관성과 신뢰 등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스타벅스는 외국에서 내가 자주 가는 커피숍이다. 경험주의자라서 여러 가지를 새로 시도하기도 하지만, 커피숍의 경우 스타벅스를 자주 이용하는 이유는 그 곳의 ‘검증된 맛’과 ‘공부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낮선 장소에서 이곳 저곳을 경험하며 커피맛과 분위기가 나에게 맞는 곳을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고 커피 한 잔에 삼천 오백원 정도이면 싼 값이 아니니 처음부터 선택에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그 나라의 유명 커피브랜드 대신 스타벅스로 가는 것이다.⁰³

스타벅스는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면서도 그들이 택한 커피맛은 전 세계가 똑같다. 이것은 프랜차이즈의 생명이니 꼭 그 매뉴얼을 지켜야 할 것이다. 커피는 너무나 예민하여 누가 내리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만큼 그 맛을 유지한다는 것은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킨다는 뜻이다. 카페라떼의 경우 스타벅스만의 맛이 있는데 그 맛이 나라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면 그것은 그 나라 특유의 우유맛 때문이지 모든 면에 철저한 스타벅스가 직원교육을 잘못 시킨 탓은 아닐 것이다.

의정생활을 하면서 어떤 정치적 이유로 나의 소신을 나타내지 못 할 때는 참 곤란하다. 내 소신을 지키다보면 욕도 먹고 적도 많이 생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익만을 쫓지 않은 결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신뢰와 믿음이 대중에게 생긴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정치인이라 생각한다. 작은 성공들이 쌓여 큰 성공이 되는 것처럼, 정치인의 작은 행동들이 하나씩 쌓여 그 사람을 이루는 것이다.

스타벅스 커피가 오만가지 입맛을 가진 고객들의 입맛을 다 맞출 수는

03 한국 스타벅스 커피값은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

없다. 우유를 첨가하겠냐고 물어봐서 그러겠다고 하면 그가 자유롭게 우유를 넣을 수 있도록 커피를 조금 덜 주고,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시럽을 준비해 두는 것일 뿐이다. 모든 고객을 위해 갖가지 원두를 다 사용해 운영한 결과 자기만의 색깔이 없는 커피가 된다면



〈캐나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에서 끼니를 때운다.〉

누가 외국에서도 스타벅스를 찾겠는가?

의원으로서 민원을 받다보면 의원의 본분과 시민의 개인적 입장도 생각해야 하고, 집행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해서 판단이 어려워질 때가 있다. 그러나 그 때 나를 잡아주는 것은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진실과 가치관이며 그것은 정치에 처음 입문했을 때의 초심과 관계가 있다. 스타벅스의 맛이 한국이고 외국이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정치를 하는 사람도 늘 초심을 잃지 않아야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스타벅스가 자신만의 커피맛을 유지하는 것은 끊임없는 직원교육일 터인데 정치인이 스스로를 바로 잡을 일을 하지 않고 일정에만 바쁘면서 초심을 유지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스타벅스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정치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늘 책과 더불어 나를 가다듬는 일과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함께 하는 것! 캐나다의 스타벅스에서 ‘성학집요’를 읽으며 가슴저리게 다가오는 생각이다.

〈토론토의 눈 내리는 아침〉

최인혜

옷벗은 나뭇가지에
초록 이파리 대신 소복이 쌓인 순백의 설탕
톡하고 건드리니 보석가루되어 흩날린다

우산위에 내려앉은 순결한 속삭임
삭삭 사르륵 사르륵 삭삭~
목련꽃잎같은 눈발을 녹음하고 싶다

뺨속까지 스미는 칼바람이 기다릴지라도
토론토의 겨울아침은 설레임 그 자체

강아지발에 신발신겨 뽀드득 거리는 거릴 산책할까?
눈가루를 뿌려 향기로운 아메리카노를 마셔볼까?

강아지 묶어놓고 들어가는 스타벅스 커피숍에
기다림이며 그리움인 겨울아침이 연인처럼 다가온다



〈토론토에서 발견한 도서관의 아름다움〉

물향기신문 2013.02.18 - 최인혜 | 오산시의원/국제관계학 박사

내가 피곤할 때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곳은 도서관이다. 도서관을 좋아하는 나는 지금 토론토의 공공도서관을 돌아보며 주체할 수 없는 가슴벅침을 경험하고 있다. 토론토에는 100여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주차 걱정할 필요없이 많은 경우 지하철 역 근처에 위치하거나 지하철역과 이어져 있는 것



〈공간면적을 넓게 활용할 수 있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토론토 공립 도서관의 모습. 이렇게 큰 도서관이 늘 열람객으로 꽉 차 있다.〉

만 봐도 주민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⁰⁴

도서관을 잠깐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예산은 얼마나 드나요?’ 등등의 질문을 하는 것 대신, 아주 큰 도서관, 중간 규모의 도서관, 100평정도의 작은 도서관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공공도서관



04 캐나다에서 도서관은 동네마다 하나씩 있다고 보면 된다.

관에 직접가서 공부하며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다.

이 곳 도서관들은 대부분 중간을 회오리처럼 감아 올라가는 계단으로 설계해 전체의 공간면적을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공간이 모두 탁 터져 시원한 느낌을 준다. 장서가 많음은 물론이다. 카페트를 깔아 구두가 ‘또각’거리는 소리는 나지 않는다. 어린이 도서관에는 매트는 물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인형을 수집해놓은 진열장도 있다. 스터디 홀은 커다란 공간에 칸막이 없이 원형이나 직사각형의 큰 테이블을 놓는다. 오산의 학생열람실같은 독서실형 책상도 벽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다. 한 두 사람이 토론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유리로 만든 원기둥을 군데군데 만들어 놓은 곳도 있다. 구석구석엔 안락함을 주는 작은 테이블이나 소파를 놓아 편안한 마음으로 독서하게 한다.⁰⁵ 일인용 소파는 읽거나 쓰기 편하게 책받침이 달린 것이 많다.

책의 진열은 우리처럼 직선으로 일률적이지 않고 서점의 진열장처럼



〈도서관 중간중간 이렇게 혼자만의 공간을 주어 작은 소음에서 벗어나게 한다.〉



〈곳곳에 안락한 장소를 만들어 놓았다.〉



〈Learning center는 어느 도서관이고 꼭 차있다.〉

05 어딜가나 소파가 많다. 서양사람들은 소파를 좋아하는 것 같다.

원형에 사각형에 회전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아름답다. 도서관도 이렇게 창조적일 수가 있는 것이다. 분위기는 작은 소리로 전화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이고 난방은 억지로 뜨거운 바람을 내보내지 않고도 항상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 모든게 자연스럽다.



〈진열장 모양을 사각형으로 획일화하지 않고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꾸며 실용성과 미관을 높였다.⁰⁶ 토론토의 도서관은 마치 분위기 좋은 서점에 온 것 같다.〉

오산의 중앙도서관은 소장한 모든 책을 아이패드로 볼 수 있는 최첨단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놀라운 선진행정이다. 그러나 책을 즐기는 사람이 많지 않다면 소용이 있을까? 사람들로 꽉꽉 차있는 토론토의 도서관은 감동이다. 모두들 책읽고 컴퓨터 만지며 자기만의 시간을 즐긴다.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하는 ‘Learning center’의 경우, 비어있는 컴퓨터는 거의 하나도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빌려간다. 문제집 푸는 학생들로 가득한 도서관이 아니라는 점은 내가 외국에 나와있음을 실감나게 한다. 여기에 사는 어떤 한국인은 말한다. 도서관에 열람객이 많은 것은 할 일없는 사람이 많은 것이라고…… 그들이 할 일이 없다고 쳐도 도서관에 와서 ‘노니’ 얼마나 생산적인 일인가?

시의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같은 파이에서 사업을 나눈다면 절대로 도

06 물향기 편집자 주)



〈1인용 소파에는 모두 책받침대가 달려있어 편하게 공부한다.〉



〈스타디 홀은 자유로운 분위기이다.〉

서관의 도서구입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삭감해서는 안된다. 그것도 혁신교육도시임에랴!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데 정신은 무엇으로 편안함을 얻을까? 그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곳이 도서관 아닐까?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 안락한 소파를 빠짐없이 배치한 것만 봐도 이 곳 중소 도서관은 ‘쉬면서 공부하는 곳’이다. 오산의 도서관도 토론토의 도서관처럼 평범한 시민이 매일매일 오고 싶은 내 집처럼 정겹고 편한 곳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독서하는 시민의 증가로 교양시민이 많아질 때 그것을 바로 ‘혁신교육도시’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토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도서관에서 인생의 풍요로움



〈중간규모인 이 도서관에 자주갔다.〉



〈100평규모의 작은 도서관 - 이 정도 규모의 동네도서관은 꼭 땅을 매입해 지을 것이 아니라 임차해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을 얻은 시민이 그것을 다시 도서관에 환원하도록 기부를 장려하고 있다. 오산의 도서관도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많이 줄었는데 도서관뿐 아니라 금전적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재단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캐나다의 도서관을 돌아보니 왜 우리 도서관은 시설이며 책장이 꼭 네모져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완공될 오산시 금암도서관의 설계를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진열장, 책상, 소파 등의 모양과 배치에 신경 써 아늑하고 따뜻한 도서관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야겠다는 욕망이 솟구친다.



〈어디서나 전원을 이용할 수 있어 편하다.〉



〈내 자리…… 창밖으로 제설작업을 보며 책을 읽었다.〉

〈토론토와 오산의 쓰레기 정책〉

물향기신문 2013.02.24 - 최인혜 | 오산시의회 의원/국제관계학 박사

언젠가 오산시청 홈페이지의 ‘오산시에 바란다’라는 코너에서 한 주민이 오산시 환경과를 칭찬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 주민은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아무데나 투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는데 일명 ‘클린하우스’를 설치한 후론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다고 오산시의 노고를 치하한 것이었다.

나는 지금 토론토의 구석구석에서 그들이 어떻게 쓰레기를 처리하나 유심히 살피고 있다. 그 어디나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깔끔하게 자리잡고 있다. 쓰레기통은 대부분 세 네 종류의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보통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니만큼 커피컵만 따로 버리는 곳 -Coffee cups only-, 잡쓰레기 버리는 곳, 재활용쓰레기 버리는 곳을 구분한 예쁜 상자모양이다.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두 개의 커다란 비닐봉지 (Litter-잡쓰레기, Recycling-재활용)를 마련해 놓기도 한다. 도서관에 서는 종이가 많이 나오므로 종이박스를 마련해 놓고 건전지함도 예쁘게 비치하고 있다. 분리해 버리는 것으로 봐서 사람들의 의식정도가 토론토



〈커피를 정말 많이 마시는 나라라서 마셔도 큰 사이즈로만 마셔요〉



〈도서관에 비치된 종이버리는 쓰레기통〉



〈대형몰에서 찍은 분리수거 쓰레기통〉



〈지하철 역사의 쓰레기통. 오산에도 이런 쓰레기통이 있다.〉

시의 행정을 제대로 따라 가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오산이 토론토보다 훨씬 앞서는 것은 바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이다. 외부에서는 이렇게 분리를 잘 할 수 있는 쓰레기통의 비치가 오산을 앞서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살펴보면 같은 지구촌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우리의 경우는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 분리수거가 훨씬 철저하다. 그것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게 첫 번째 이유이다. 음식물은 따로 버려야 하며 그것도 음식물자원화센터에서 요구하는 대로 음식물쓰레기라도 조개껍데기, 양파망 등등은 따로 처리해야 한다. 시민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시민참여학교나 학부모스터디를 통해서도 꾸준히 계도하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새로 짓는 아파트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보통 아파트들은 각 층마다 마련해 놓은 쓰레기 투입구로 아무것이나 버리고 있다. 종이를 비롯한 재활용쓰레기는 따로 처리되나 그 외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마구 뒤섞여 버려지고 있는 것



〈батери 수거함. 건전지만을 위한 쓰레기통은 우리도 꼭 필요하다.〉



〈재활용과 잡쓰레기 분리수거〉



〈한 쓰레기통에 여러가지를 분리해 버린다.〉

이다. 이것은 시스템이 없고 주민계몽도 없기 때문에 의식있는 시민이 후진화되는 경우이다. 음식물을 제대로 수거하여 음식물자원화센터로 옮기면 그 곳의 공정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퇴비가 되어 나오는 최첨단 시설을 가진 오산시를 생각하면 음식물처리에 있어서는 토론토와 오산은 비교할 수가 없다.⁰⁷

오산시청 홈페이지 ‘오산시에 바란다’에서 한 주민이 밝혔듯이 쓰레기를 마구 버리던 시민이 언제 그랬냐 싶게 쓰레기통에 버리게 된 것은 시스템을 마련해 준 덕분이다. 어떤 시설이 가동돼 주변이 깨끗해지면 사람들은 감히 그 주변을 더럽히기를 주저한다. 반대로 더러워진 곳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더러운 곳을 더욱 더럽히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⁰⁸ 그러므로 부도덕



〈오산시도 금연조제가 올 7월부터 발효된다. 금연구역이 늘어나 이전 우리도 길거리에 담배전용 쓰레기통이 나타날 것 같다.〉

07 인터넷 댓글에 선진국의 음식물처리를 꼭 배워오라는 어느 시민의 조언이 있었는데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우리 오산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번 여행이 아니면 절대 몰랐을 것이다. 음식물 처리는 우리가 수출해야 할 선진행정이다.

08 사람의 이런 심리에 대해서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으면 좋을 것이다.

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오산시 행정의
앞서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오산의 ‘클린하우스’⁰⁹는 이의 설치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닌 손정환 의원의 노
력이 반영된 바이기도 하다. 이렇듯 의회
와 집행부가 좋은 일에 협력하면 바람직
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젠 토론토와
같이 예쁜 쓰레기통을 만들 차례이다. 앞
으로 제작되는 쓰레기통은 그 누구나 세
심하게 분리해 버리고 싶도록 보기에



〈음식물자원화센터에서, 의원들과〉

예쁘고 실용적으로 만들 일이다. 이것은
예산도 많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다. 작은 행정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
가며 시민에게 사는 기쁨을 주는 오산시를 기대해 본다.



〈오산의 클린하우스〉



〈클린하우스를 돌아보는 손정환 의원〉

09 오산의 클린하우스에도 배터리 전용 박스를 마련해야 한다. 담배전용 쓰레기통도 등장할 것 같다.

〈동네 Starbucks 에서 발견한 사람의 아름다움〉

경기 in 2013, 2, 15

지금 내가 머무르는 토론토의 Dundas West 라는 동네에는 은행 건물을 개조해 만든 스타벅스 커피숍이 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 200미터 거리에 있는 소박한 스타벅스로 걸어간다. 눈이 많이 온 날은 눈 속에 푹푹 빠져가며 토론토의 커다란 제설차량이 어떻게 눈을 치우는지, 차들이 얼마나 엉금엉금 기는지 보면서 걸어간다. 제 몇대로 사는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 표현으로도 ‘crazy’라고 하는 변덕스럽고 추운 날씨에 반팔로 다니기도 한다.

나는 이 동네 스타벅스에 가서 모닝커피 한 잔 하며 책을 보고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어떤 날은 베이컨 향이 코끝을 간질이는 바삭한 통밀빵 샌드위치로 아침을 먹기도 한다. 경쾌한 목소리로 ‘Hi!’라고 인사하는 직원들이 즐거움을 더한다. 커피를 주문할 땐 꼭 ‘Do you need a room for milk?’¹⁰ (우유 첨가하실거예요?) 라고 친절하게 묻는다. 여기 사람들은 커피에 시럽이든지 우유든지 뭔가를 많이 첨가하기 때문에 우유를 넣는다고 하면 커피를 조금 덜 주는 것이다. 직원들은 작은 잔에 커피를 담아 새로 나온 커피 샘플을 맛보겠냐 물어보며 돌아다니기도 해 커피 매니아들을 즐겁게 한다.



오래된 은행건물을 개조한 스타벅스. 7시에 문을 열어 자주 가서 책보며 하루를 계획했다.

10 어느 브랜드의 커피숍에서나 이 질문은 꼭 한다.

사람들의 동선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손님들을 보는 일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아침에 오는 사람들의 50%는 개를 끌고 나오는 것 같다.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눈이 많이 와도 개를 한 두 마리씩 끌고 스타벅스로 온다. 핀란드에서는 개를 산책시키지 않으면 법에 위반된다는 말을 듣고 놀란 적이 있는데 캐나다는 그렇지 않아도 개와 함께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이들은 눈을 맞으며 와서 개를 밖에 묶어놓고 커피를 take-out 한다. 강아지 발에 신겨진 파란 색깔, 빨간 색깔의 덧신은 귀엽기 그지없다. 한 손엔 큰 사이즈의 커피 잔을, 한 손엔 강아지 목줄을 잡고 나가는 캐나다인들의 애완견사랑은 흔히 볼 수 있다.

한국의 스타벅스는 장사가 잘되는 변화가에 위치하여 점심시간이면 직장인들로 붐벼 앉을 자리도 없고 너무 시끄러워 대화가 불가할 때도 많다. 여기도 중심가에 위치한 스타벅스는 시끄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타벅스에는 놀랍게도 혼자 온 사람들이나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들이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한다. 모두들 애플 컴퓨터나 아이패드를 꺼내들고 진지하게 일을 하고 있다. 동그랗고 작은 테이블의 경우 의자가 두 개일 경우가 많은데 거의 혼자왔으니 자리가 없으면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마주앉아 어색함 없이 일을 한다.

노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스타벅스를 찾아온 노인들은 커피 한 잔을 놓고 신문을 읽거나 책을 읽는다. 호호 할머니 할아버지가 둘이 노트북을 펴놓고 뭔가를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은 오래도록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와 노트북을 켜자, 잠시 후 할머니 한 분 들어와 노트북을 켜고 두 분이 진지하게 일을 하는데 어찌나 인상적인지 몰래 사진을 찍었다. 죄송해요 ㅠㅠ〉



(아침이면 개를 데리고 와 밖에 묶어 놓고 커피를 take-out 해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사진 참 정겹지 않은가?)

사람들은 호감가는 사람을 표현할 때 ‘예쁘다’, ‘귀엽다’라는 형용사를 많이 쓴다. 그러한 수식어는 나이 든 사람에게 쓰기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아름답다’거나 ‘멋있다’는 형용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쓸 수 있다. 누구를 ‘아름답다’고 표현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캐나다 시골동네 스타벅스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혼자있는 시간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들을 매일 만난다.

갑자기 한국의 수영장에서 함께 샤워하던 70세 가까이 보이던 어르신들의 대화가 생각난다. “요즘 애니팡 안 하나봐?” “애니팡? 나 요즘 캔디팡 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게임에 초대하는 한국사람들과 스타벅스에서 책을 읽는 캐나다인들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

〈토론토에서 맞는 새해아침〉

최인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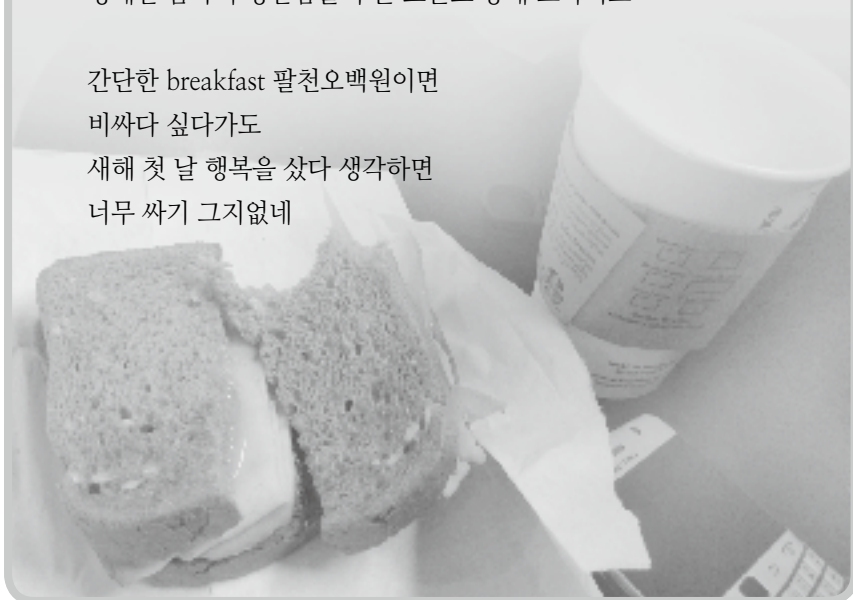
몽게구름 머금은 하이얀 카페라떼
3.5볼로 산 일상의 행복

베이컨향기 풍기는 바삭한 통밀빵 샌드위치
톨라떼와 어우러지는 새해 아침밥

갖가지 머핀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애플 아이패드 애플컴퓨터와 함께 공부하네

알아들을 수 없는 대화소리와
경쾌한 음악이 평안함을 주는 토론토 동네 스타벅스

간단한 breakfast 팔천오백원이면
비싸다 싶다가도
새해 첫 날 행복을 샀다 생각하면
너무 싸기 그지없네



〈영어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경기 in

나의 딸은 영어권에서 물리학을 공부한다. 누가 해외유학을 한다고 하면 모두가 남의 나라 말로 공부를 하니 얼마나 어려울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말이 문제가 되는 시기가 지나면 이제 공부는 지식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여 공부를 못하는 경우는 없다.

이번에 나는 몇 번의 황당한 경험을 했다. 뉴욕과 LA에서 우리나라 교민들을 여러번 만나게 되었는데 어쩌다가 딸이 물리학(Physics)을 공부하고 있다고 하면 모두들 그 어려운 학문을 어떻게 공부하냐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맞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우리 아이는 문제를 하도 풀어대 오른 손목을 잘 쓰지 못한다. 그래서 왼손으로 쓰는데 이제는 왼쪽 손목도 아파서 큰일이다. 그런데 교수나 조교들도 모두 손목 보호대를 하고 다닌다더라” 이렇게 대답을 하면, 교민들은 한결같이 “정말 대견하네요. 그럼 물리치료를 하면 되겠네요” 하거나 “앞으로 체육 선생님이 되겠네요” 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대답이 예외없이 되풀이되는 것을 보고 이 분들은 ‘Physics’ 또는 ‘물리학’이라는 소리의 자료를 가지고는 있으나 물리학이 무엇인지 모르므로, ‘물리’라는 단어로 물리치료를 떠올리고 ‘physical’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니 체육선생님과 연관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모두 영어회화를 유창하게 하는 교민들이다.

반면에 나는 일상영어회화를 잘하지 못한다. 특히 리스닝이 잘 안 돼 ‘good’도 못알아 들은 적이 있다. 한국에서 장음으로 ‘굿~’이라고 해왔는데 원어민이 짧게 ‘굿’이라고 하니 못 알아듣는 것이다. 한번은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비틀거리니 안에 있던 미국인이 아직도 줄리나

고 ‘still sleepy?’라고 묻는데 이렇게 쉬운 것도 맥락을 몰라 못알아 들었다. 그러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원어민과 영어로 토론을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다. 잘 못알아 들겠으면 다시 물으면 된다. 그들은 내용에 관심이 있지 서툰 발음과 틀린 문법을 탓하지 않는다. 원어민들의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발음이 하도 굴러서 샌드위치를 여러 번 잘못 시켰지만 그렇다고 굶은 적은 없다. 그런 영어는 여기서 며칠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현실이 이렇진대 한국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햄버거 가게를 차려놓고 전자칠판을 구비한 영어마을을 만들어 실패한 사실은 어이없는 일이다. 물리학을 ‘Physics’라고 외우면 뭐하겠나? 물리학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토론토 시청, 이튼센터 옆에 있다.〉



〈Office of Mayor - 토론토 시장 접견실, 비서를 만나 오산의 음식물자원화센터를 소개했다.〉

오늘 나는 토론토 시청에 가서 시장비서와 면담을 하고 왔다. 유창하지 못한 영어로 “내가 토론토의 행정을 유심히 보니 음식물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게 문제더라, 외부에서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가 잘되는 것을 보면 시민들이 시의 행정을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지만 내부의 음식물쓰레기는 시민계몽도 없고 시스템도 없다, 땅이 넓어 묻어버릴 수 있겠지만 지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세계를 리드하는 선진도시가 되기 위해



〈토론토 시의원들〉



〈뉴욕 맨하튼의 뉴욕타임즈. 분리수거에 영 개념이 없는 미국사람들에게 뉴욕타임즈를 통해 일침을 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서 토론토시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자원화하는게 어떻겠는가? 우리는 음식물자원화센터가 있어 짧은 시간 안에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든다, 버려도 퇴비를 만들어 버리면 캐나다 땅이 비옥해지지 않겠는가”등등의 제안을 하자 시장비서는 좋은 의견이라며 앞으로 이메일을 통해 이 문제를 더 토론해보자고 시장의 명함을 주었다.¹¹

나는 동시에 토론토 유력일간지에 독자투고를 하여, 오산의 선진적인 음식물자원화센터를 홍보하고 그들에게 기계를 수입하여 운영을 배우라는 제안도 하려고 한다. 분리수거가 더욱 안되고 있는 뉴욕에도 화두를 던지려고 한다.

‘Physics’라는 단어를 소리로만 아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리학이 어떤 학문인지를 먼저 아는 것, ‘음식물자원화센터’가 영어로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 그것이 하는 일을 잘 아는 것이 영어를 하는 길이 아닐까? 이 재미있는 일화를 통해 앞으로 ‘영어’를 공부하지 않고 영어로 ‘공부’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11 귀국하여 음식물자원화센터의 수출에 관해 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하자 가당치 않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한번해보자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왜 안된다는 생각부터 하는가? 안되더라도 이 일을 추진하므로써 얻어지는 행정상의 질적 향상을 생각하면 수출을 못해도 매우 많이 ‘남는 장사’인 것이다.

<캐나다에서 배우는 다문화정책>

경인일보 - 최인혜 오산시의원 (국제관계학 박사)

민속 명절인 설이 지났다. 다문화가정의 며느리들은 타국의 명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한국말이 서툴러서 힘들었을까? 아니다. 모두가 내 식구라고 따뜻하게 맞아주면 몸이 고달파도 명절이 즐거웠을 것이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다문화정책은 비슷하다. 여기는 미국의 한 초등학교이다. 아이들의 엄마나라말을 장려하고 있다. 아예 dual language반을 만들어 운영한다. 한국아이가 이중 언어반을 원하면 영어는 기본이고 한국어 수업도 제공한다.>

엄마와 아이들의 언어발달이 늦는다는 것은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된다. 각 지자체는 다문화센터를 두고 방문교사로 하여금 이들의 언어를 지도하고 부진한 학습도 도와주게 하나 모두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나는 지금 캐나다에서 이들의 다문화정책을 알아보고 있다. 캐나다는 다문화의 역사가 수백년 된 나라로서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에 이주해



참 널찍해서 좋다.

사회에 어떻게 동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8, 9살이나 훨씬 이후에 이주해 와도 모두 언어의 불편 없이 살고 있다. 이들이라고 왜 언어의 장벽과 학습 부진이 없었겠는가? ESL(외국인을 위한 영어과정)을 들으면서 이 나라 아이들과 뛰어놀고 공부하며 짧은 시간 안에

언어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우리 땅에서 태어나고 적어도 아빠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부모 중 한 명은 우리말을 잘한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 양부모가 다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캐나다 이주민 가정보다는 훨씬 나은 언어환경이다. 캐나다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특별한 센터는 없다. 기껏 있어봤자 지역센터이고, 이 글을 쓰느라 앉아있는 공공도서관 등의 ‘이주민을 위한 정보센터’ 등이니 우리로 치자면 주민자치센터 정도에서 다 해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은 말이 늦는 것에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는 인내심이 없다는 것일 뿐……. 이 조급증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하에서 공부를 못하면 대학에 못가니 말이 늦어 학습진도가 늦는 그들의 자녀를 보며 불안을 느끼는 사회에 기인한다. 또다른 문제는 다문화가정을 보는 우리들의 자세인데,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야, 다문화는 남아!’라고 한다든지, 친구들도 ‘다문화 다문화’하면 아이들이 집에 와서 ‘엄마, 내가 왜 다문화야?’라고 물을 때 부모들은 할 말이 없다고 한다.

다문화가정이 보편화되는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열등하지 않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들일 뿐이라는 인식이다. 언어가



〈학교는 시설보다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닐까? 소박한 초등학교!〉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들도 자원봉사로 학교에 와서 선생님을 돕는다.〉

늦는다고 조금해 하지 말고 한국인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다문화정책은 각 지자체의 ‘사업’이 되면 안 된다.

어느 단체가 수탁자가 되어 어떤 정책을 수행했는가가 평가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며 우리 사회의 편견을 없애는데 일조하는 것. 그리하여 그 가정이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며 살게 하는 것이 다문화센터가 할 일이다.¹² 이주민이 행복한 캐나다 하늘 아래서 ‘다문화’라는 용어부터 바꾸거나 없애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¹³



〈2012년 다문화 가족을 위한 행사에서.
내가 입은 옷은 인도네시아 전통의상이다.〉



〈다문화축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12 이 기고문이 나간 후 밴쿠버에서 캐나다의 다문화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인으로부터 공감가는 내용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13 다문화센터에 끊임없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다문화가정을 귀찮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은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대부분은 아내가 도망갈까 봐 집밖에도 못나가게 하는 한국인 남편이 많으며 그들은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브로드웨이에서 생각하는 혁신교육〉

중부일보 - 최인혜 오산시의원 국제관계학 박사

뺏속까지 파고드는 추운 날씨에도 맨해튼 한복판 타임스 스퀘어를 메우며 그 긴 줄을 마다치 않고 브로드웨이 뮤지컬 티켓을 사고자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뉴욕의 무엇이 그리 매력적이고 대단한지는 수많은 요인 중에서도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보면 이해가 갈 것



〈극장에 들어서서……〉

같다. 나는 브로드웨이에서 1997년에 첫 공연을 올린 후 지금까지 인기 절정을 이루는 뮤지컬 ‘라이언 킹’을 관람했다. 공연을 보기 전까지는 컴퓨터라는 과학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만들 수 없었던 ‘라이언 킹’을 어떻게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보는 무대 위의 뮤지컬 연극으로 만들었다는 것 인지, 그 많은 누우떼를 어떻게 재현시키며 무파사의 죽음을 표현할 것인지 등등 도대체 상상할 수 없었다.



〈이 사진 한 장 찍고 제재받아 더 이상 찍지 못했다.〉

그러나 극장에 들어서 첫 장면의 음악이 흐르며 무대뿐만 아니라 관중석 사방에서 노래 부르며 나오는 배우들이 등장하자 이제 시작인데도 기립박수를 치고 싶었다. 아프리카 배경인 탓인지 무파사와 심바를 비롯한 수십명의 배우들이 대부분 흑인으로 이루어진 라이언 킹

의 무대는 인간의 창의성이 자본과 만났을 때 어떤 감동을 불러일으키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었다. 브로드웨이 배우들의 연기와 노래는 말할 것도 없이 훌륭하고 연극무대에서 표현하기 힘든 장면들을 기발한 상상력으로 구현해 마치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을 주는 것이었다. 그것은 문화, 예술, 과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 낸 걸작이었다.



〈무대는 이러한 반인형으로 채워진다.〉

나는 배우들의 커튼콜이 끝나자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 어떤 공연을 보았을 때보다 훨씬 큰 감동이 밀려왔다. 사람들은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상상할 수 없는 창의력과 실력을 보여주는 작품이 있을 때 흔쾌히 지갑을 연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순간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우리나라에서 열풍이 불고 있는 혁신교육이 함께 떠오른 이유는 무엇이이었을까? 혁신교육이란 무엇인가? 혁신교육은 아이들에게 이중언어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배움에 즐거움을 주고자 동아리 활동을 많이 시키는 것도 아니다. 현재 혁신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창의성인 것 같다. 창의성이 있었기에 뮤지컬 라이언 킹은 탄생할 수 있었다.¹⁴

과연 그 창의성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창의성이 없다면 그것은 생각할 능력이 없어서이다. 자유롭게 생각할 능력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영혼을 불어넣어 생각할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있는가? 우리가

14 뮤지컬 라이언 킹을 연출한 여성 줄리테이머는 인도네시아에 살았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의 인형극에서 얻은 영감으로 반인형(가면을 머리 위에 얹었다)을 생각해냈다고 한다. 처음에는 전체 가면을 썼으나 배우의 목소리가 가면에 묻히자 가면을 머리위에 얹게 된 것이다. 이 여성의 사진 속 아름다운 얼굴을 보며 존경심이 우러나왔다.



〈맨해튼 한복판 타임스퀘어. 뒤편 왼쪽에 라이언킹 뮤지컬을 공연하는 민스코프 극장 (Minskoff theatre) 이 보인다.〉

하는 혁신교육이 ‘혁신’인지 아닌지 가늠하는 좋은 잣대가 있다. 좋은 교육을 위해선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혁신’이라는 이름하에 투입되는 예산이 끊겼을 때 그 교육을 전혀 지속할 수 없다면 그것은 ‘혁신’이 아니다. 돈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혁신’이라 하면서 공부할 돈

을 주어가며 자격증 운운한다면 그것도 혁신교육이 아니라 기능인 양성에 가까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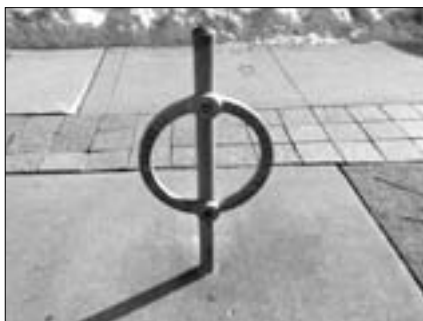
뮤지컬 라이언 킹에서 보듯이 연극무대에서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장면들을 멋지게 재현해내는 창의력, 즉 생각할 힘을 키우는 것. 그게 바로 혁신교육이다. 어학실습실과 전자칠판을 구비했다고 외국어를 잘하게 되지 않는 것처럼, 창의력은 교육에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는 지금, 며칠 전 감동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으며 진정한 혁신교육으로 키워진 인재가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¹⁵

15 뉴욕은 가 봐야 할 곳이 너무 많은 곳이다. 지저분하고 어두운 지하철역부터 센트럴 파크, 뉴욕 현대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타임스퀘어, 뉴욕 공립도서관 등등,,, 그러나 나는 뉴욕을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점 찍으려다. ‘오페라의 유령’은 표를 구하지 못했기에 서울 샤롯데에서 본 한국공연으로 만족했지만 다시 뉴욕에 가면 유명한 뮤지컬은 모두 보고 오겠다. 브로드웨이 라이언 킹 공연을 보려면 만화영화 라이언 킹을 몇 번 보고 관람하는게 좋다. 나의 경우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20번도 더 본 덕분에 그 대사를 모두 이해해 감동이 술술~ 관람료가 궁금하신가? 궁금하면 500원~ 15만원에서 20만원을 생각하면 된다. 돈은 전혀 아깝지 않다.

〈자전거 거치대〉

캐나다 토론토에는 길거리
에 자전거 거치대가 참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다. 오산도 자전거 도
로건설에 열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자전거 거치대를 눈여겨 보았다.

토론토는 물론 오산보다 자전거
를 타기에 편한 도시이고 그 어디
나 자전거를 세울 수 있다.



〈가장 흔한 자전거 거치대〉

뉴욕에서도 자전거도로를 경험해 보았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너무
넓고 내가 갔던 날은 말할 수 없이 추워서 흑인이 끄는 인력거?를 탔는
데 존레논이 살다가 피격당한 아파트 앞에서부터는 공원을 벗어나 자전
거 도로로 달렸다. 넓은 자전거 도로였지만 차들 옆을 지나가니 역시 위
험해서 조마조마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산시는 토론토나 뉴욕만큼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편한 도시가 아
니다. 억지로 도로 다이어트를 하여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차도 막히고



〈시에서 관리하는 자전거, 돈을 내고 타다가 반
환하고 오면 된다.〉



〈보도에 죽 늘어서 있는 자전거 거치대〉

사고도 많을 것인즉, 항상 도시계획은 먼 훗날을 내다보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여야 한다.



〈센트럴 파크는 너무나 커 흑인이 끄는 인력거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기도 했는데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있어도 위험하다.〉



〈노인센터〉

캐나다나 미국은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천국이라 할 만큼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나는 LA에서 한 노인센터를 방문했다. 백인과 동양인, 히스패닉계가 어우러져 있는 노인센터는 아침부터 분주했는데 때마침 내가 간 그날 목관5중주단이 한시간 이상 공연하며 노인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있었다.

컴퓨터를 가르치는 공간엔 열공하는 노인들로 꽉 차 있었고, 2층엔 한국노인들이 모여 팝송으로 영어를 배우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면 내려와 함께 즐거운 점심을 한다. 자식들이 사주었다는 아이패드를 만지작거리는 노인들도 서너명 있었다. 갖가지 인종이 모인 이 노인센터를 보니 우리나라 다문화의 미래를 보는 듯 했다. 앞으로 몇십년 후 우리나라 노인센터에서도 베트남 노인, 중국노인, 몽골 노인들이 나라별로 친하게 둘러 앉아 여생을 보낼 것이다.

오산시의 노인프로그램은 이들과 비교해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이렇게 건강한 어르신들의 일자리이다. 나는 세 도시(토론토, 뉴욕, LA)의 미술관 박물관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 안내원들은 거의 모두 시니어들이었다. 안내데스크에서부터 May I



〈노인들은 모두 인종별로 끼리끼리 모인다.〉



〈확실히 표정은 백인들이 밝은 것 같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 노인들앞에 나타난
목관 5중주 팀. 새로운 곡을 연주할 때 마다
플룻주자가 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다.〉



〈멕시코 할머니. 이 노인분의 자태나 말하는
모습이 어쩌나 멋있던지 사진을 찍자고 하니
흔쾌히 응해 주셨다.〉

help you? 하고 다가오는 노인인력들! 관람객을 이끌고 다니는 도슨트도 노인들이다.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 이걸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는 선진국임에 분명하다.

노인들이 조금 느리다는 것을 빼고 젊은이와 비교해 무엇이 부족한단 말인가? 노인인력을 귀중히 여기고 미술관 방방마다 노인안내원들을 배치하는 그들이 존경스럽다. 그들은 차별없이 노인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우리는 해마다 노인일자리 만들기에 애를 쓰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노인을 차별하지 않는 우리의 인식이다. 바리스타가 노인이면 어떻게 편의점 계산원이 노인이면 어떠랴! 노인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습관부터 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들이 택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LA Getty Center: 놀라운 기부문화〉



〈게티센터로 들어간다〉



〈LA도심으로 뿔어나는 주변환경이 아름답기 그지없다〉

LA에서는 특히 Getty Center와 Huntington Library를 돌아보며 부자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들을 입양하는 그들의 정신과 힘써 번 돈을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하는 진정한 부자정신은 존경심을 자아낸다.

LA 산타모니카 마운틴 기슭에 자리잡은 게티센터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미술관 중의 하나라고 한다. J. 폴 게티(1892-1976)라는 석유 재벌이 사재 1억 3000만달러를 기부해 지은 거대한 미술관이다. 게티는 재단에 7억달러를 기부했다고 한다.



〈게티센터는 연대기별로 각종 작품들을 비치한 4곳의 미술관이 중심이지만, 센터안에는 게티연구소도 있어 희귀서적들과 미술사 서적들을 볼 수가 있다. 미술관 밖의 조경도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주변의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많은 관람객들이 도시락을 싸와 미술관 밖에서 소풍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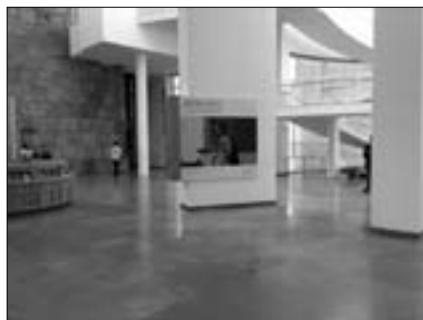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해서 미니 아이패드를 이용해 후레쉬를 터뜨리지 않고 살짝잘짝 찍었는데 실제 찍고 싶었던 것은 전사관 방방마다 배치되어 있는 노인들이었다. Getty 미술관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모습은 정장



〈공간의 제약으로 세계 유명작품들을 많이 보여주지 못함이 아쉽다.〉

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노인 안내원들이었다. 밖에 나와 물어보니 이곳에는 6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노인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 같았다. 재단에서 이들의 비용을 댈 것이고 그 기부 주역이 Getty인 것이다.

이렇게 훌륭한 미술관이 입장료를 전혀 받지 않고 21세기를 대표하는 건축물과 세계적인 작품들을 전세계인에게 개방한다. 우리나라에는 게티센터와 같이 재벌이 지어서 공공시설로 사회에 환원하고 무료로 운영하는 미술관이 한 곳도 없다고 한다. 이렇게 인간의 영혼을 올리는 공공시설을 어느 한 사람이 기부한 것이라니…… 진정한 부자란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엔 언제나 이렇게 존경받는 재벌이 나타날 것인가? 참으로 잊을 수 없는 미술관이었다.



〈입구 쪽의 깔끔한 로비와 계단〉

〈LA Huntington Library : 역시 놀라운 기부문화〉

LA 헌팅턴 라이브러리는 철도재벌이었던 헨리 헌팅턴(1850-1927)이 자신의 대저택을 사회에 환원하여 도서관으로 만든 것이다. 이름은 Library라고 붙여졌지만 도서관뿐 아니라 일본정원, 사막정원, 장미정원을 비롯해 아기자기 아름다운 수많은 정원들과 전 세계에서 수집한 15,000여종의 식물들이 무수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놀라운 장소이다. 도서관에 들어가면 귀중한 예술품, 고문서들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도서관에서 밖을 내다보면 시원하게 펼쳐진 정원들이 가슴을 설레게 한다.

자신의 전재산을 후대를 위해 아낌없이 환원하는 미국의 아름다운 부자의 정신을 배운 것. 이것은 LA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할리우드같은 유명관광지에서 느낀 감동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여행이란 정신을 배우는 것이다. 여행을 떠나는 순간 내가 마주하는 새로운 길들과 식



〈토론토 공립도서관이나 뉴욕공립도서관처럼 사람들이 들어와 앉아 공부하는 곳은 아니다. 귀중한 문서들이 귀하게 모셔져 있다. 천천히 둘러보아야 얼마나 귀중한 소장품들인지 알 수 있다.〉



〈회화, 조각 등 예술작품을 매우 많이 소장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선인장 정원도 있다.〉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던 나무아래 벤취〉

당,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내 여행의 주인공이 되며 그 시간들은 나의 정서가 되고 인격이 된다. 그래서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 여행은 ‘서서하는 독서’라고 나는 주장하고 싶다. LA의 많은 방문지 중에서 Getty center나 Huntington Library는 오랫동안 나의 머릿속에서 진정한 부자들의 정신을 상기시킬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육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놀랍게도 톰 소오여의 모험을 지은 마야크트웨인의 필사본도 보관되어 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익히 아는 작가들이나 과학자들의 숨결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고문서들이 흥분을 자아낸다.〉

〈토론토 대학교 물리학 강의실 스케치〉

오산에서 가장 좋은 한신대와 오산대가 오산에 있다면, 토론토에는 캐나다에서 가장 좋다는 토론토 대학교가 있다. 대학이 있는 도시는 아름답다. 대학의 순기능과 그 지역의 발전은 비례관계에 있다. 나는 그래서 대학을 사랑한다. 해당 대학뿐만 아니라 오산시



〈토론토대 물리학 강의동〉

민 모두는 우리의 대학을 사랑하고 발전시키려 노력하여야 한다. 오산의 전통시장이 오산의 대학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통시장 활성화 노력을 하는 것은 매우 가슴뛰는 일이다.

나는 토론토에 머무는 동안 설레이는 마음으로 토론토대학을 탐험했다. 학생증 검사를 하지 않는 도서관을 찾아가서 공부하고, 학생증 검사를 밤 11시에 한다면 그 전에 돌아오는 식으로 해서 마치 내가 토론토 대학생인양 마음껏 이용했다.

교수들은 출석을 부르거나 누구를 지적해 질문을 하지 않으므로 나는 용기를 내 강의실에 들어가 청강을 했다. 얼마나 짜릿한 경험이었는지 모른다.

— 양자역학을 청강한 날 —¹⁶

새벽에 눈이 내리던 날, 질척질척한 길을 건너 지하철을 타고 토론토 대학

¹⁶ 그 날 쓴 일기이다.

교에 도착했다. 학교인지 하나의 도시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 학교에서 건물
을 찾는다는 것은 낯선 사람에게 참으로 힘든 일인 듯하다. 토론토대학교에는
6개의 지하철역이 분포해 있다. 나는 Saint George역에 내렸다.

평소에 꼭 들어가 보고 싶던 물리학건물에 도착하여 커피를 한 잔 샀다.
large size¹⁷의 커피를 사가지고 강의실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다. 강의실 분
위기는 진지하기 그지없다. 한 2백여명의 학생들이 강의를 채우고 있다. 칠판
은 4개로 나뉘어져 있다.¹⁸ 수업 전에 학생들은 교수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있다. 강의를 시작되었다. 물론 나는 electron이라든지 energy라든지 formula
라든지 proton이라는 단어들을 제외하고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으나 교수
의 양자역학 강의는 매우 명쾌하다. 강의 내용과 숙제 중에 질문있냐고 “Any
other questions?”를 연발하면 반드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다. 여학생이 손
을 들면 교수는 “Yes, Mam”, 남학생이 손을 들면 “Yes, Sir!” 하며 친절하게



〈토론토대학교 학생들과……〉

설명해준다. 어쨌든 저렇게 질문들을 잘
하냐…… 학생들은 무시로 손을 들며
질문을 한다. 이는 한국학생들과 매우
다른 점이다. 토론토대학에서도 물리학
을 하는 아이들이니 다들 머리도 좋을
것이다.

강의실의 음향시설은 놀랍도록 좋다.
교수가 강의중간에 뉴턴의 프리즘 실험
등에 대해 (1666– Newton Prism
Experiment (age of 23) Prisms don't
colour the light”) 1850s– Kirchhoff
(physicist) + Bunsen (Chemist) in

17 이 사이즈가 그랜데인데 나는 너무 많아 다 마시지 못한다.

18 한 판을 다쓰면 다른 판을 쓰는 식이다.



〈강의실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Heidelberg study “flames” with first spectrometer Discover Cesium & Rubidium… 녹음된 대화를 들려주는데 이 넓은 강의실에 명료하게 울려 퍼진다. 이 진지한 분위기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강의를 듣는 학생들! 정말 기특하다.

나는 이 순간 30년전 꿈꿨던 여대생으로 돌아가 세계최고의 대학 강의실에 앉아 강의를 듣고 있다. 미국영화에서 나오는 대학교 강의실의 분위기와 매우 똑같다. 온갖 종류의 인종이 모여 집중하여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다. 리즈 위더스푼이 주연한 ‘금발이 너무해’라는 영화에 나오는 바로 그 장면과 매우 흡사하다. 나는 대학시절에 유학을 가고 싶었다.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유학의 꿈을 이룬 것 같은 느낌이다.

교수는 칠판을 바꿔가며 왼손으로 글씨를 쓴다. 저런 외계어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니…… 교수는 딱 50분만에 강의를 끝내고 아이들은 일어선다.

쓸데 없는 말 한 마디도 하지않고 끝내는 이런 강의에서 실력없는 교수는 절대 살아 남을 수 없을 것 같다. 3시간 속강에 3시간이 길다고 한 번 쉬고 대충 30분 일찍 끝내는 강의는 상상할 수도 없다.

〈토론토 대학의 젊은이들〉

최인혜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를
드넓은 캠퍼스를 누비는 세계의 젊은이들

커다란 백팩에 화장기없는 얼굴을 하고
아무데나 앉아 공부하는 학생들

한 손엔 샌드위치 한 손엔 책을 들고
먹는 시간마저 아까워 책속에 코를 묻는다

애플컴퓨터, 아이패드와 더불어 공부하는 그들은
고독하고도 자유로운 영혼들

천오백만권의 장서를 가진 44개의 도서관을 찾아다니며
나는 미아가 된다

어제는 영어를 못해 가장 비싼 샌드위치를
오늘은 영어를 못해 가장 맛있는 샌드위치를 시키고 만다



〈토론토대학교 도서관에서〉

토론토대학교에서 나를 가장 흥분시킨 것은 도서관을 비롯한 공부할 공간들이다. 어딜가나 널려있는 도서관과 카페들은 모두가 공부할 장소들이다. 학생들은 복도에서도 엮드려서 또는 주저앉아 컴퓨터를 켜 놓고 공부를 한다. 어쩔 그리 자유롭게 공부를 하는지……

이런 면학분위기를 오산의 대학생들이 가져온다면…… 부럽기 그지 없다.

〈작고 아름다운 Munk 도서관에서〉

최인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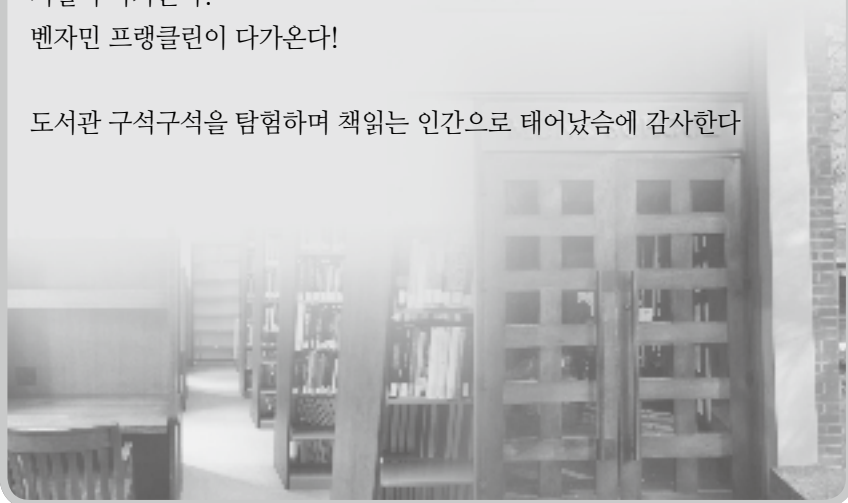
세상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도서관이 있구나!

책이란 것이 이렇게 보석같은 빛을 발할 수 있구나!

수많은 고서가 사이사이 동그마니 앉아있는 정결한 책상 하나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던 책한권 뽑아 백년된 책상에 가만히 앉아보면
처칠이 다가온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다가온다!

도서관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책읽는 인간으로 태어났습에 감사한다





〈Robarts Library - 토론토대에서 가장 큰 도서관.
토론토대에는 도서관이 44개, 장서는 천오백만권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를 자주 갔었다.〉



〈로바츠 도서관내부 - 위에서 내려보며 찍은
모습. 자리없어 공부못하는 경우는 없다. 24시
간 문을 연다.〉



〈책이 무지무지 많다.〉



〈로바츠 도서관 로비 - 아침에는 한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로비의 자리도 꽉 찬다.〉



〈학생들은 피자한조각, 커피한잔 등으로 점심을 먹는다. 비싸니까 도시락을 싸오는 아이들이 꽤
많다. 도시락문화이다 보니 일회용품이 엄청나게 배출된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심각한 문제인데
정작 그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어디서나 전원걱정 없다.〉



〈Graham Library – 내가 사랑했던 공간, 너무나도 조용하고 와이파이기가 잘 잡힌다.〉



〈너무나도 조용해서 커피 한모금 훌쩍 거리기도 미안하다.〉

〈지금 신문기고문 쓰고 있다.〉



〈Robarts Library - 토론토대에서 가장 큰 도서관.
토론토대에는 도서관이 44개, 장서는 천오백만권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를 자주 갔었다.〉



〈로바츠 도서관내부 - 위에서 내려보며 찍은
모습. 자리없어 공부못하는 경우는 없다. 24시
간 문을 연다.〉



〈책이 무지무지 많다.〉



〈로바츠 도서관 로비 - 아침에는 한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로비의 자리도 꽉 찬다.〉



〈학생들은 피자한조각, 커피한잔 등으로 점심을 먹는다. 비싸니까 도시락을 싸오는 아이들이 꽤
많다. 도시락문화이다 보니 일회용품이 엄청나게 배출된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심각한 문제인데
정작 그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제설작업〉

토론토는 겨울날씨가 매우 춥고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도시라 들었는데 내가 있을 동안은 그렇게 춥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한국에서 간 나는 무척 추웠으나 예년에 비해 따뜻했고 눈도 그리 많이 오지 않은 것이라 한다. 그러나 어느 날, 눈이 많이 내리자 길에는 스키를 타고 학교 가는 학생이 있을 정도…… 전철처럼 생긴 street car도 위험한지 움직이지 못하고…… 눈이 오자 재빠르게 나타나는 제설차량들을 보니……



〈street car, 눈이 많이 오니 이 친구도 달리지 못한다.〉



〈트랙터처럼 생긴 소형 제설차량이 나타난다.〉



〈좀 더 큰 제설차량이 나타나 눈을 치우고 다닌다.〉



〈이런 차량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공항의 제설차량들〉

그들은 눈이오면 소금을 어찌나 많이 뿌리는지 겨울엔 모든 사람들의 신발이 소금기로 허영게 물든다. 그래서 장화를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토론토에서는 여성의 필수품이 롱부츠나 장화인 것 같았다. 눈이 오자 제설차량이 바로 나타나 작업을 하는데 그래도 시민들은 눈을 늦게 치운다고 야단이었다. 사실 오산도 눈이 내리면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치우고 치우지만 시민들은 흡족하게 여기지 않는다. 공무원들의 제설작업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내 집 앞부터 부지런히 치우도록 계몽을 하는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13 해외탐방을 마치며〉

물향기신문 2013.03.03 - 최인혜 | 오산시의회 의원/국제관계학 박사

※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주제에 대해 공부해 온 최인혜 의원이 며칠 전 귀국하였습니다.

그동안 본지는 최 의원이 해외탐방 과정에서 보고 배운 것을 지역사회에 소개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판단되어 몇 회에 걸쳐 연재해 왔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최 의원이 귀국하면서 해외탐방에 대해 정리한 글과 캐나다 다문화 관련 글을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 의원이 소개한 내용들은 모두 그대로 지역사회에 적용될 순 없을 것입니다. 지역 조건과 재정, 역량, 시민의식, 문화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는 최 의원이 소개한 내용이 지역민들의 영감과 상상력을 높이고, 필요할 경우 지역사회에 창조적으로 적용시킬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지는 지역 정치인들의 공부하는 자세와 고민의 결과물을 환영합니다. 누구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내놓는다면 본지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편집자 주〉

나는 지금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의정활동은 한 해 내내 이루어지고 매달 회기가 있으므로 장기간 해외에 나가긴 힘들었지만 큰 맘 먹고 감행한 여정이었다.

의정활동은 결국 좋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해외연수는 그 일을 하기 위해 더 배우겠다고 세우는 계획이다. 지방의원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이 당선된다. 이러한 보통 사람이

의회에 들어와 수십년간 공무를 집행한 ‘달인’ 공무원들과 함께 상수도니, 하수도니, 도시계획이니를 다룬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공무원들은 법의 집행을 잘하나 대안은 부족하다. 그러므로 의원은 공무원들보다 또는 시민들보다 훨씬 많이 공부해야 하고 무엇보다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나는 여행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절실히 깨달은 사실은 ‘평소에’ 공부하는 사람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느 곳을 여행하면 모든 것을 가슴으로 느끼며 진실로 견문이 넓어진다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면서 시정에 늘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의원이 어느 곳을 여행하면 우리 도시와 그 도시의 비교가 저절로 되면서 장단점이 파악된다. 어떻게 시정에 반영할 것인지 아이디어가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이다.

나는 미국과 토론토의 공립도서관 6군데에서 직접 공부하면서 도서관을 꼭 시비로 땅을 매입해 지을 필요가 없이 임차를 해서 운영하거나, 큰 건물을 허가할 때 도서관건립을 권유하면 이들처럼 동네마다 도서관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가 홍보관으로 만든 시청로비를 토론토시청은 공립도서관으로 만들어 개방하고 있음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또한 도서관이 시비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그들처럼 매달 기부금을 받는 것도 생산적인 일임을 알게 되었다.

토론토나 뉴욕, LA의 쓰레기 정책을 보고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내실 있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며 더군다나 음식물자원화센터까지 설치, 운영하는 선진행정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환경과를 격려해 줄 일이다. 그 자신감으로 토론토시청에 찾아가 오산시 쓰레기처리 행정의 우수성을 알리고 음식물자원화센터의 수입을 제안하게 되었다. 토론토 시장의 이메일을 통하여 이 제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분리수거가 더욱 안되고

있는 뉴욕시의 유력신문에 독자투고도 하려고 한다.

LA의 한 공립학교에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모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아예 ‘dual language (이중언어)’반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영어가 늦는다는 사실에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임을 믿기 때문이다. 한국어가 늦는다고 너무 야단을 떨 것이 아니라 천천히 기다리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재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장애인이 대접받는 그들의 정책과 시민의식을 보며 장애는 그들에게 하나의 ‘문화’임을 알았다. 그들은 다문화를 차별하지 않듯이 장애인과 그냥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다. 거의 모든 버스가 기본적으로 저상버스이고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가진 사람이 타면 버스는 바닥으로 내려앉는다(kneeling). 휠체어가 올라오면 버스 앞부분의 좌석이 벽으로 붙고 그 자리에 휠체어가 들어가며 안전벨트까지 채우게 된다. 장애인은 이 일을 도와주는 운전기사에게 고맙다고 ‘Thank you, I appreciate...’를 연발하며 이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LA의 한 ‘Senior center (노인센터)’에서는 백인계, 멕시코계 등 노인들이 따로따로 모여면서도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 다문화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미술관, 박물관 등의 공공시설 안내원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주 많았다. 나이들어서도 사회에 공헌하는 나라, 노인들을 고용하는 선진국을 보며 우리도 빨리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뉴욕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라이언 킹’을 보고는 그 창의성과 배우들의 실력에 눈물이 났다. 인간의 창의성이 자본과 만났을 때 사람들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흔쾌히 지갑을 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LA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만난 ‘water show(물쇼)’도 마찬가지였다. 물웅덩이를 만들어놓고 어떻게 배우들을 출연시킬 생각을 했을까? 마치 콜럼

부스의 달걀 같았다. 이렇듯 창의성을 키우는 혁신교육을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만약 예산이 끊겼을 때 지속할 수 없는 교육이라면 그것은 '혁신'이 아니다. 교육은 창의성,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인데 돈이 없다고 생각을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LA의 산타모니카 산기슭에는 석유재벌 '게티'라는 사람이 우리 돈으로 1억3천만불을 들여 Getty center(게티센터)를 건립하고 예술작품과 아름다운 정원을 제공하며 전세계인에게 그것도 무료로 개방하고 있었다. 그는 재단에 7억불을 기부했다고 한다. 내가 가 본 미술관 중 그 설립정신과 관객을 배려하는 시설이 가장 감동적이었던 '게티 센터'에서 진정한 부자의 의미를 되새겼고 시민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문화공장 오산'의 역할을 생각했다.

그렇게 위험하다고 들어왔던 악명높은 뉴욕이 줄리아니 시장의 단호한 행정으로 매우 안전한 도시가 되어 전 세계인을 마음놓고 다니게 하는 것을 보고 좋은 도시를 만드는 '리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 또한 복잡하고 넓고 지린내나고 먹다 남은 햄버거를 찾으려 쓰레기통을 뒤지는 노숙자들이 많은 뉴욕의 지하철을 타면서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나라임을 알았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공공질서에 관한 한 투철한 의식이 있어 화장실에서는 예외없이 한 줄을 서고, 물비누와 손건조기를 비치하여 사람들은 화장실 사용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토론토의 경우 눈이 오면 길에서 스키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인데 대형 중형 소형의 제설차량이 재빨리 출동하여 눈을 치운다. 또한 개인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도로변의 비치대가 매우 정리가 잘되어 있고 시가 대여하는 자전거들도 곳곳에 자리잡고 있어 원하는 시민이 기계에 돈을 넣고 타다가 목적지에 놓고 오면 되니 자전거도시를 지향하는 오산시가 배울 점이 많았다.

그 외 많은 곳을 돌아보며 너무나 많이 느끼고 배웠으나 그것을 다 열

거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한다. 2년 전 북유럽 학교탐방을 통해, 좋은 시설이 교육을 성공시킨 것이 아니라 한 아이도 포기할 수 없다는 열정



〈지저분하고 허름한 뉴욕 지하철〉



〈센트럴파크에서 인력거를 끌어준 흑인. 지나가는 곳마다 설명을 아주 잘해주어서 팁을 5불 주었더니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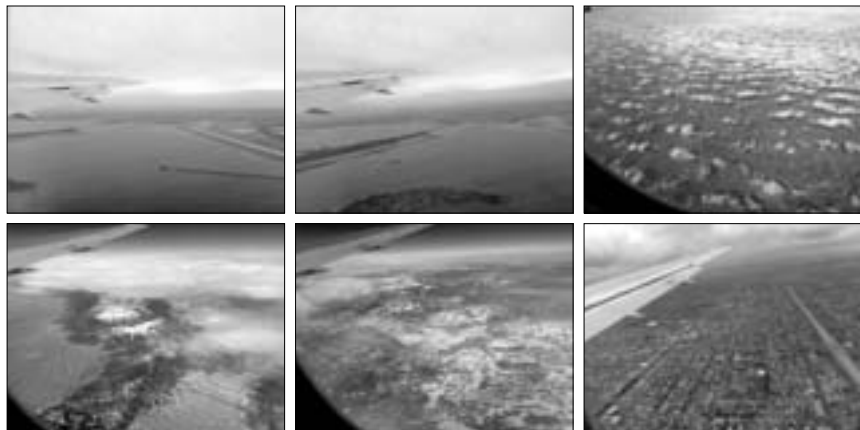


〈섹스앤더시티에서 캐리가 결혼하려던 뉴욕 공립도서관. 완전 관광지라 공부가 될는지……〉



〈센트럴파크옆의 구겐하임 미술관〉

과 사랑이 북유럽 교육의 가장 큰 성공요인이었음을 깨닫고 왔듯이 이번 탐방을 통해서도 나는 무엇보다 그들의 ‘정신’을 배우고 왔다. 이 모든 결과는 나의 뇌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의정활동에 놀라운 상승작용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최선을 다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늘 공부하는 자세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의원이 될 것임을 다짐한다.



〈평소 자동차로 횡단하고 싶었던 미대륙을 뉴욕에서 LA까지 비행기로 횡단(?)했다.^^
뉴욕에서 LA까지 6시간이 넘게 걸린다.〉

〈제 19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 도서관 설립, 운영에 관한 제언과
음식물자원화센터의 수출

오산시의회 최인혜

본 의원은 최근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하여 그들의 쓰레기 정책, 도서관 정책, 노인일자리 정책 등에 관해 공부하고 왔습니다. 저의 학습이 시정에 창조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서관에 관한 제언입니다. 저는 미국과 캐나다의 공립도서관 6군데에서 직접 공부하며 그들의 도서관운영을 지켜보았습니다. 동네마다 반드시 한군데 이상의 도서관이 주로 지하철역 근처에 위치해 주차걱정없이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것을 보며 매우 감동했습니다. 토론토 시청의 로비에도 공립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오산에도 적지 않은 도서관이 있지만 시민들의 바램은 모두 우리 동네에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것이지요. 이 바램을 이루기 위해 제언합니다. 첫째, 도서관건립을 위해 건물을 임차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꼭 땅을 매입하여 도서관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십억 수백억의 세금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우리시가 건물을 임차하여 도서관을 만들면 예산도 절감되고 설립도 쉬울 것 같습니다. 둘째, 물류창고나 홈플러스 같은 큰 건물이 들어올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허가조건에 도서관을 넣어 설립을 권유하거나 기부채납을 받는 것 입니다. 그렇게 하면 혁신교육도시¹⁹답게 동네마

19 2013년 4월 18일 오산시는 iMBC, 동아닷컴, 한경닷컴이 주관하고 농림축산 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13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교육도시〉를 수상했다.

다 크고 작은 도서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셋째, 우리 도서관이 후원회를 조직하여 기부금을 받는 것입니다. 토론토 공립도서관에서 도서관이용으로 운택한 삶을 사는 시민들에게 기부를 장려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얻은 아이디어입니다. 도서관이 기부금을 받아 시비에만 의존하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중〉

지 않는 자생력을 갖춘다면 올해같이 시예산이 빠듯해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정책에 대한 우리시의 선진행정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캐나다나 미국이나 밖에서는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예쁘게 비치하고 있지만 음식물쓰레기는 전혀 분리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욱더 음식물쓰레기수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얻어 토론토시청 시장실을 찾아가 오산시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상황과 단시간 내에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음식물자원화센터’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메일을 통하여 우리 선진행정의 수출을 가늠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당장은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특히, 우리 사업이 더욱 안정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하는게 최우선일 것 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잘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자신있게 우리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 미국탐방에 관한 언론보도>

“건물 임차해 마을마다 공공도서관을”

(경기신문, 2013, 03,08)²⁰

경기 “건물 임차해 마을마다 공공도서관을”

오산 최인혜 시의원, 본회의 5분발언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욕구 해결 가능

경기신문 지명신 기자 | msj@kgnews.co.kr



오산시의회 최인혜 의원은 7일 “건물을 임차하는 방법으로 공립도서관을 마을마다 설립, 시민의 문화욕구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제19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공립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해 땅을 사들인 뒤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수백억 원의 세금이 필요하고, 공립도서관 시설은 크게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가 건물을 임차해 도서관을 설립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각 마을 단위로 도서관 설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형 창고나 물류센터 등 큰 건물이 들어올 때 공공 이익을 위해 허가 조건에 도서관을 넣어 설립을 권유하거나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²⁰ 오산은 도서관이 많은 도시라서 도서관이 꼭 동네마다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나 5분발언을 보도한 언론에서는 임차를 하면 동네마다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가장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또 기부금을 받아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세금을 줄어나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최근 사비로 캐나다와 미국의 도서관 6곳을 방문, 도서관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을 했으며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기동안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등 7건, 2013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건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건물 임차해 마을마다 도서관 설치”²¹

(경기일보, 2013, 03, 08)

최인혜 오산시의원 “건물 임차해 마을마다 도서관 설치”

경기일보 강경구 기자 | kangkg@kyeonggi.com



오산시의회 최인혜 의원은 건물을 임차하는 방법으로 마을마다 공립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²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제19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수십억 수백억원의 세금을 들여 땅을 사서 도서관 건

21 경기일보에 난 이 기사를 보고 어느 날 한 노신사가 나를 찾아 오셨다. ‘한국고서협회’의 정건택님이었는데 상금한 아이디어를 모든 회원들이 칭찬했다며 평생 수집한 귀한 책들 5천여권을 오산시에 기증하고 싶다고 하셨다. 좋은 기사를 발굴하는 기자의 눈과 신문의 역할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 사건이었다. 정건택님과 우리시는 앞으로 이 일에 대해 더욱 긴밀한 토론을 하기로 했다.

22 저는 동네마다 도서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고, 임차를 하면 동네마다 설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기사는 가끔 다르게 나올 때도 있죠^^

물을 짓는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해 오산시가 건물을 임차해 도서관을 설립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설립도 쉬울 것”이라고 강조했다.²³

이어 시가 건물을 임차해 도서관을 설립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각 마을 단위로 도서관 설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물류창고나 홈플러스 같은 큰 건물이 들어올 때 허가조건에 도서관을 넣어 설립을 권유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혁신교육도시답게 동네마다 크고 작은 도서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²⁴

최 의원은 “최근 사비로 캐나다와 미국의 도서관 6곳을 방문, 도서관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을 했으며,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외연수 후 공무원 월례조회에서 의회사상 처음으로 의원 해외탐방보고회를 가졌다. 기회를 주신 박상욱 오산시장님께 감사한다. 양발을 수술한 관계로 앉아서 PT를 했다.〉

23 그렇죠, 그렇게 말했죠.

24 맞습니다. 맞아요! 오산대역에 들어오는 홈플러스에 먼저 타진해야겠습니다.

Inhye's council report



2013년 최인혜 해외연수 보고서 (2013년 2월)

- 토론토 • 뉴욕 • LA -

Canada & USA

